

지역 소식통

정읍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29명 합격

정읍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는 올해 치러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 29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검정고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 32명이 응시했다. 이 가운데 고졸 분야 24명(전체 합격 15명, 부분 합격 9명), 중졸 분야 4명(전체 합격 3명, 부분 합격 1명), 초졸 분야 1명이 각각 합격했다.

센터는 검정고시 대비를 위해 지난 1~4월 10주 동안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며 청소년들의 학업을 도왔다. 교육은 청소년문화체육관 꿈드림사업실에서 주 4회, 한 번에 2시간씩 이뤄졌다. 한편 정읍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옥정호 유역 야적 퇴비 특별 점검

정읍시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6월 15일 까지 한 달 동안 옥정호 유역에 방치된 야적 퇴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은 올해 녹조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야적 퇴비 관리 시기를 상반기에서 상·하반기로 확대한 조치다. 장마철 이전에 고농도 침출수가 수계로 흘러드는 것을 미리 차단해 녹조를 예방하고 농가의 환경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점검 대상은 옥정호 유역 내 하천 주변과 공유지 등에 야적되거나 방치된 퇴비다. 시는 덮개 설치 상태와 수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결과 부적절하게 보관한 퇴비가 확인되면 1차로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부착해 수거하거나 덮개를 씌우도록 요청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 명령 등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사통팔달 고창, 안전도시로 도약

심덕섭 고창군수 예비후보, 서해안 철도 고창역 신설등 대형 국책사업 공약 제시

심덕섭 더불어민주당 고창군수 예비후보는 12일 '열린 교통, 안전한 고창' 공약을 발표하며 "고창을 사통팔달과 재난안전의 모범 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교통분야 최대 사업은 서해안철도 고창역 신설이다. 새만금-목포 110km 구간에 국비 4조 7,919억원이 투입되며, 개통시 고창에서 서울까지 KTX로 90분이면 달는다. 서해안 관광벨트의 핵심 연결고리인 노을대교(국도 77호선, 8.86km 해상교량)는 사업비가 4,254억 원으로 증액 확정됐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도로망도 대폭 확충한다. 국도 22호선 흥덕-부안 구간 4차선 확대에 1,944억원, 선형 개량에 196억원을 투자한다. 고창읍 우회도로(국도 23호선) 신설, 국도 77호선 위험구간 개선, 국지도 15호선 확포장, 고창-담양 고속도로 연결 등 총 5건의 제 4차 건설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심덕섭 후보는 "길이 뚫리면 사람이 오고 돈이 온다. 동시에 군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 인프라가 복지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생활 교통도 바꾼다. DRT(콜버스) 전면 도입과 1,000원 행복택시 확대로 면 단위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선 자동화와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설치한다.

안전·재해 예방에는 총 2,50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상하·와촌·대

부안군-부안소방서, 재난·화재 대응 맞손

군민 안전·재난 일선 공무원 보호 협약...재난 대응 역량 강화기대

부안군은 12일 부안군청 대회의실에서 부안소방서와 재난 및 화재 발생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과 최길웅 부안소방서장을 비롯해 각 기관의 주요 부서장과 실무진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난이나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굴착기, 지게차 등과 같은 중장비와 현장에서 긴급히 필요한 장비의 동원 요청과 응원에 관한 협력 사항을 골자로 하며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재난·화재 발생시 군의 중장비를 활용하여 재난·화재 현장 수습·복구에 협력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2024년 6월 8일 행안농공단지 내 발생한 화재 상황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군에서 소방서 현장대응단의 지원 요청을 수용하여 굴착기와 트럭, 모래 등을 화재 현장에 지원하여 화재 진압에 기여한 바 있다.

군은 이번 협약에 따른 협력체계 가동시 현장의 소방력 장기 가동으로 인한 소방공무원 피로 누적 해결과



신속한 수습·복구로 소방력의 타 현장 긴급출동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여 타 사고 현장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부안 해물마루 지방정원에서 열린 제13회 부안마실축제에서 소방서, 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군 안전관리요원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가동을 통해 1건의 인명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으며 군민이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시책과 협업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 북적 '대홍행'

내장산문화광장 내 '기적의 놀이터' 효과 특출... 지난 달 이용 건수 총 3571대로 최대 실적

정읍시가 지난 4월부터 직영 체제로 전환한 자전거 대여소가 한 달여 동안 3571대의 대여 실적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정읍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 까지 31일간 자전거 대여소 이용 건수는 총 3571대에 달한다. 특히 어린 이남이었던 지난 5월 5일에는 하루 동안에만 556대의 자전거가 대여되어 이전 개장 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 같은 흥행의 배경에는 지난해 9월 준공된 내장산문화광장 내 '기적의 놀이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시설 준공으로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급증하면서 자전거 대여소 이용 수요도 함께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시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주말과 공휴일 이용자



이 평일과 비교해 20배 이상 집중되는 만큼 원활한 매표와 대여·반납 절차를 제공할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중이다.

한편, 시는 자전거 노후화로 일어나는 사고를 막고자 정기적인 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절차를 제공할 인력 운용 효율화 방안을 벌이며 안전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 세계지질공원, 부안 청자 도예 체험 개최

가정의달 맞아, 바다가는 달 연계 체험·불거리·먹거리 마련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전북 서해안의 푸른 바다와 수려 년의 시간이 빛나는 지질 유산, 그리고 천년의 예술 청자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열린다.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은 한국관광공사의 해양관광 활성화 캠페인 '바다가는 달'과 연계하여, 오는 16일 변산반도 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지질이 선물한 진흙, 부안 청자 도예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변산반도 생태탐방원,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협력하여 추진되며, 부안의 지질학적 가치가 어떻게 부안청자라는 찬란한 문화유산으로 꽃피웠는지를 관광객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인천, 강진과 더불어 전국 3대 청자 생산지로 손꼽히는 부안은 과거부터 양질의 고품토와 점토가 풍부해 최상품의 청자를 생산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문 도예가의 지도 아래 관광객들이 직접 불레를 돌려 청자를 빚어보는 '부안 청자 도예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숙련된 도예가가 선보이는 정교한 청자 공예 퍼포먼스는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불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체험과 더불어 부안의 비옥한 땅과 바다가 키워낸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마련된다.

이번 '지오푸드(Geo-Food) 팝업스토어'에서는 부안에서 생산된 신선한 특산품들을 선보인다.

지질공원의 풍요로운 자연환경이 선물한 부안만의 건강한 맛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전북 서해안 지질공원은 2023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질 유산 보존과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문체부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공모 선정

국비 3억원 확보... 2028년까지 '라이프UP 실버체육교실' 운영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6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3차 공모사업에 최선정되어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창군은 '고창군 라이프UP 실버체육교실' 사업에 2028년까지 3년간 총 6억원(국비 3억, 지방비 3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체계적인 스포츠 환경을 만든다.

올해는 어르신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6개 종목(요가, 라인댄스, 생활체조, 탁구, 파크골프, 민속경기 등)이 진행된다. 전문 생활체육지도자 6명이 관내 공공체육시설 6개소에 배치되어

주 5회 상시 강습을 진행하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돕는다.

고창군은 기금 보조금 교부 일정에 맞춰 강사 채용과 참가자 모집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돌입한다. 사전·사후 체력 인증을 통해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를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